

<청년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문1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1. 연구 발표에 대한 의견

- 각각 창립 5년차와 2년차를 맞이한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에 대해 노동운동·사회운동의 맥락에서 내부 구성원에 대한 양적 조사를 포함한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최초의 일로,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현재진형형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작업임.

-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의 자기 역사를 만들어온 이 새로운 운동들이 현재 어느 지점에 위치해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있음.

- 연구 결과를 실천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그것이 주는 ‘위치 감각’에서부터 앞으로의 방향성과 전망,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활동가의 몫일 것.

○ 발표1.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성장과 활동

1) ‘개별구제형’ 노동조합 vs. ‘산업규제형’ 노동조합

- 청년유니온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개별 가입 유니온 모델을 조직의 형식으로 취했으나, 청년유니온이 새롭게 만들어온 활동의 범위와 그것의 사회적 영향력은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일반적 경험을 넘어서고 있음.

- 개별 조합원에 대한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단일사업장 교섭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청년유니온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사례에서부터 ‘미용실 스텝’ 사례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제도와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효과성’에 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음. 이것은 조직된 힘과 재정·인적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서 ‘일점돌파’의 집중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물이기도 함.

2) 담론에 있어서 ‘청년’과 ‘노동’의 결합

- 88만원 세대를 시작으로 한 2000년대 후반 청년세대 담론의 특징은 ‘타자의 의한 규정’에 있음. 세대집단 내에서 발생한 공동의 경험과 성찰에 의한 세대정체성의 자기 확립이 아니라 외부의 필요(정치기획)에 의해 호명된 측면이 있음.

- 이 문제에 있어 청년유니온은 ‘청년’과 ‘노동’이라는 상징을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청년세대 담론 내에 ‘청년노동’의 공간을 확보했고, 이것이 청년 당사자 스스로의 운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했음. 당사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었음에도 사회적으로 언어화되지 못하고, 문제화 되지 못했던 ‘청년노동’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과.

3) 유사 노동조합? 이것은 왜 노동조합이 아니란 말인가.

-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NGO)나의 ‘이항대립’적 정체성 토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청년유니온 3기 집행부에 이르러 지난 활동을 종합하고 자기 운동론을 정립하는 시도의 과정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게 됨.

- 초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사업장 바깥의 사회 전체를 활동 무대로 삼는 것. 조합원이나 개별 기업 소속 노동자의 부분적 이익이 아니라,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노동자 집단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의 전략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가장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을 취하는 것. 노동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대변하는 것. 그런 가치에 합의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커뮤니티를 이루고 재정적·조직적 힘을 형성하는 것. 노동조합의 의미와 역할이 그렇게 확대될 순 없을까? 학술적 규정을 넘어선 노동조합운동의 지평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의 문제.

- 그렇다면, 기존의 고전적/고정적인 노동조합 개념을 적용하여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를 ‘유사 노동조합’이라고 파악할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이들이 노동조합으로서 교섭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현행 노동관계법률의 제도적 한계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청년유니온은 출발부터가 사업장의 틀과 조합원의 이익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시민사회 전

체를 활동영역으로 삼고, 청년노동 전체를 대변하고자 사회적인 의제와 방법으로 싸워온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이다. 다수의 중소기업사업장에 소수로 고용되어 흩어져 일하고 있는 청년노동의 조건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발생이 불가능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개별 사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를 대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청년유니온 운동은 2000년대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을 주체로 등장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의 한 형태다. 우리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업종·직종 전반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개별 기업의 문제를 기업 집단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개별 사안을 사회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싸워왔다. 지금까지는 청년유니온의 정체성이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이냐의 질문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합한 형태로 하나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 때다.

※ 자료출처 : 2014 청년유니온 정기총회 자료집, 3기 청년유니온 사업계획 총론

○ 발표2.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조합원 의식과 상태

- 급속도로 증가해온 구성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단체로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 그간 전화 연락을 통한 조합원 총조사 등을 시도해왔으나, 단순 인적사항과 경제활동 여부, 직업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머물렀음. 이번 연구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조직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와 의견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유의했음.

- 발표에 있어 두 조직을 ‘청년 노동조직’이라는 하나의 특성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분석에 그쳤다는 것이 아쉬움.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체 집단의 내적 차이,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점들이 드러나는 대목들이 있어 관심이 감. 그러나 연구의 목표 자체가 두 단체를 비교하기보다 기존 노동운동과 대비되는 두 신생 노동조합의 공통점에 기초해 조합원의 현황을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향후의 추가적 분석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기혼자 비율(15.9%)이 높았고, 대학원 재학 이상이 전체의 20.1%로 상당한 수치를 보였음. 경제활동의 속성에 있어서는 현재 취업상태인 비율이 67.2%였고, 전일제 풀타임의 비율(78.8%)이 상당히 높았으며, 전문직 및

사무직 종사자가 많았음(68.9%).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한편으로는 청년유니온 향후 노조 사업의 핵심 과제에 대한 의견에서 ‘청년의 불합리한 노동환경 문제제기와 개선’(1순위 의견 62.5%)과 ‘청년 일자리 실업문제 정책 제시’가 상위에 오르면서 청년유니온이 그간 정책기획 사업으로 수행해온 업종별 근로조건 실태조사와 고발 및 캠페인(이슈파이팅), 법적용 확대 및 근로기준 확보와 제도·관행 개선, 일자리·노동 문제에 정책적 개입의 요구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청년유니온의 사회적 역할 · 향후 전망과 과제

○ 생애 첫 노동을 ‘권리’로서 배우며 공동으로 성장하는 생애 첫 노동조합.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 청소년유니온의 출범 등이 이와 같은 맥락에 있음. 청년의 삶에서 노동과 사회가 만나는 접점으로서 청년유니온이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청년의 삶’이라는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의 진입 과정, 노동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청년노동’의 문제들을 의제화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청년유니온의 기본 역할임.

○ ‘14년 4월 30일 법내노동조합 진입 이후 청년유니온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본 고민은 역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권한, 교섭권이라는 무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조직화 및 교섭 모델을 수립하는 것임.

○ 청년유니온이 개척해야 할 민간 영역의 단체교섭 모델은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서비스업종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하는 등으로 업종 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형식이 되어야 함.

○ 한편으로는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 사례와 경험을 내용적 · 지역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청년노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킴으로써 청년 일자리 ·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수단을 확보해야 함.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사실상 ‘임금단체협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는 의제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대화가 곧 ‘단체교섭’ 수준의 운동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청년유니온만의 독자적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노동운동의 강화에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을 목표로 양대 노총, 특히 산별노조들과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함. 적극적으로 연계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특정 업·직종별 노동시장에 대한 청년유니온의 접근방식과 기존 산별노조의 자원과 전략의 결합된다면 분명 공동의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임.

○ 운동의 정체와 관성화를 피하고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며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혁신의 과제들을 끊임없이 도출해야겠지만, 기존에 청년유니온이 고유하게 만들어온 운동들은 보다 낮은 곳으로, 더 열악한 곳으로, 주변의 주변으로 향해야 함. 사회적 관심과 노동보호의 사각지대, 무법지대에서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현장의 청년들을 만나고, 당사자의 아주 구체적인 삶과 노동을 드러내는 일. 그것에서 시작하며 사회적 지지를 동력으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일. 그런 작은 성과들, 승리의 경험들을 계속 축적하는 일. 여전히 그것이 청년유니온이 잃지 말아야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을까.

<청년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문2

하윤정 알바노조 조직팀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

알바노조가 설립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문득 알바노조의 평가의 척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알바연대에서 알바노조로 전화했지만, 교섭을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활동의 내용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아이디어를 통한 기획, 실제 사례를 통한 이슈파이팅을 통해 알바노조가 알려지고, 포털사이트 메인에 노출되고, 그를 통해 조합원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조합원이 늘었다. 그러나 이것이 잘 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다. 무릇 노조라면 사업장에 기반하고, 그 곳에서 주기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가 이슈파이팅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조직한다면, 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섭과 파업이라는 생각 말이다. 만약,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공척도, 우리의 운동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까?

‘노조’의 길을 간다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알바’라는 말의 모호함이었다.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등, 알바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에 따라 온갖 알바가 탄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알바’를 조직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오히려 편의점/패스트푸드 등 업종 혹은 직종을 특정하여 조직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미국에서 최저임금 투쟁을 주도하고, 패스트푸드노동자를 대규모로 조직한 SEIU의 영향이 없지 않았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업종/직종 아니면 (특정 상권)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시작하고, 실제로 사람을 파견(?)하는 등의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알바노조의 전망,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중앙집행국 성원 사이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다.

전국적 조직, 조합원 관리, 규모확대에 따른 대의제 고민

현재 알바노조는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의 주체들이 활동을 미약하게나마 시작을 한 상황이다. 이들도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정당의 활동경험이 있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알바노조 중앙의 활동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활동을 시작, 준비하고 있다. 현재, 알바노조에는 대의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재 조합원이 300명이 넘었고, 다음 총회가 있을 시점까지 조합원이 더 늘어날 것을 가정했을 때, 대의원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구상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대의기구를 운영하는 정도의 회의체계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조 내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공통성 형성 문제

알바노조 조합원들의 공통성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사업장에 기반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조합원들이 알바노조라는 공간 내에서 어떤 공통성을 형성할 수 있을지, 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실제로 형성된 공통성을 바탕으로 활동조합원을 조직하는 것 또한 알바노조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더 가 봐야 하는 길

알바노조 1년, 알바연대의 활동까지 포함하더라도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다. 활동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짧은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아직 알바노조만의 고유의 조직화 모델을 발명(?)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앞으로 더 많은 시도들과 좌충우돌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알바노조는 당분간 노동조합과 NGO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다만, 그 활동 속에서 끊임없이 전망에 대한 토론을 하고, 알바노조만의 길을 개척해낼 수 있을 거란 낙관을 해본다.

<청년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문3

- 청년노조운동의 의미와 전망:

기존 노동조합운동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직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 청년노조운동의 때늦은(?) 등장과 기존 노동조합운동

- 청년노조운동이 201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늦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음.

- 1990년대 말 이후 2000년대 중-후반 시기까지는 비정규직 규모 자체가 급증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전사회적으로 급부상함. 따라서 노동조합운동 또한 기존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비정규직 노조운동이 발생, 성장함.

- 반면, 지속적인 청년실업과 그 이면에 놓인 노동시장 내 교육-보상 불일치, 유동적 노동시장의 고착화로 인한 경력경로 단절 등의 문제에 대한 주목도는 적었음.

- 기존 노동조합운동 또한 정규직 중심으로, 또 기업별 관행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고착화되면서 정규직 운동과 비정규직 운동 간의 괴리가 쉽게 메워지지 않는 상황. 이러한 현상이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조합원 구성의 중고령화와 병행.

- 한편으로 2000년대 후반 들어 '세대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기존 정규직 중심 노조운동이 청년노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세대론'을 알리바이로 삼는 경향이 나타남. 기존 노조운동이 청년노조운동에 대해 여전히 '무시'나 '동정'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는 존재함. 조합원 자신들이 젊은 시절 투쟁을 통해 획득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이룬 일정 수준의 임금소득의 상당 부분을 현재 청년층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해 왔기 때문. 청년실업 또는 청년노동의 문제를 '눈높이'의 문제 또는 '일시적-개인적' 문제로 한정하는 자본의 시각에 형식적으로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족 단위의 교육투자라는 개인적 접근을 통해 자신의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학력별 및 대학서열에 따른 격차의 구조화에 대응하는 모순적 관행이 나타남.

- 다른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청년노조운동을 ‘젊음’이나 ‘신선함’의 이미지로 소비하는 데 머물며 청년층 불안정노동 문제에 대한 기존 노조운동 스스로의 책임의 문제는 경시해 옴. 중장년층 정규직 노동자들도 더 이상 고용이 안정적이지도 않으며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요컨대 청년노동 문제는 ‘세대’ 문제만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불안정 노동자층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존 노조운동의 이러한 인식수준은 낮은 상태임.

○ 일반노조운동의 침체와 청년노조운동의 부상

- 한편, 일반노조운동은 기존 노조운동의 기업별 관행에의 도전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기업별 경계로 묶을 수 없는 유동적 노동자들의 조직화라는 의미를 지님. 이러한 운동이 직종별 운동을 거쳐 나아가 노동시장 규제력까지 갖출 수 있는 산업별 운동으로 확장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 그러나 한국의 산별운동은 기존 기업별 조직이 ‘전환’하는 형태로 형성되어 온 데다 기업별 조직 내부의 정규직-비정규직 괴리의 문제 또한 돌파하지 못하고 있음. 공공부문이나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 사업장들만 보더라도 일반 조합원들은 물론 간부 활동가들까지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원칙적 수준에서는 적극적이나, 구체적 사안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노조운동 접근은 기존에 조직화 자체가 미비하였던 주변적 직종을 중심으로 시도되어 옴. 그러다보니 직종별 운동을 바탕으로 산업별 수준의 운동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전망 자체가 구조적으로 차단됨. 그나마 노동시장 유동성이 낮고 현장 기반 조직화 접근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둠. 그간 최저임금 투쟁이 청소노동자들의 직종임금 투쟁의 성격을 띠어 온 것도 이 때문. 반면, 현장 기반 조직화가 거의 불가능한 유동적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자층을 대변하고자 하는 시도는 청년유니온과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등 청년노조운동이 거의 처음인 듯함.

○ 청년노조운동의 기존 노조운동에의 시사점

- 청년노조운동이 기존 노조운동에 대해 지니는 의미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인정’과 ‘분배’의 두 차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초기의 청년노조운동을 세대론에 기반한 인정투쟁으로 국한시키던 기존 노조운동이 이들을 재평가한 계기는 청년노조운동이 각종 캠페인 사업 등을 통해 불안정노동 문제가 ‘인정’과 ‘분배’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임. 기존의 노동운동이 분배를 둘러싼 경제투쟁을 넘어선 계급적 정치사회적 투쟁에 포괄되는 부차적인 것으로만 ‘인정’의 문제를 바라보다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이는 최근에 이르러 노조운동 내에서 젠더, 인종, 고용형태의 신분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상하게 된 과정과도 연관됨. 이후 청년노조운동이 초기의 인정투쟁 중심 접근에서 교섭 등 분배투쟁 접근에 보다 밀접해지고 있는 경향 또한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임.

○ 청년노조운동의 발전 전망에 대한 몇 가지 단상

- 문제는 청년노조운동의 조직확대 기반이 주로 인정의 논리에 바탕하고 있는 데 반해, 조직의 확대와 성장, 대안적인 운동 방향 제시, 그리고 기존 노조운동의 쇠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 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배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노조운동이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는 도시 청장년층 불안정 노동시장 영역은 그 유동성으로 인해 현장 기반 조직화가 어렵다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따라서 청년노조운동의 발전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분배적 기능의 강화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우며,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연결의 과잉, 관계의 결핍’ 경향에 주목해야 함.

- 조직화 측면에서는 청년유니온은 취업준비생과 청소년 등 다양한 집단으로 조직대상을 확장해 가고, 알바노조가 대학을 거점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등 대상과 방법의 측면에서 조직화 전략을 갖추어가고 있음은 분명. 그러나 이를 통해 ‘현장 기반 조직화’ 접근의 제약을 온전히 넘어서기는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음.

-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의미(미래 전망 포함)’임. 이들은 청년노조 조직에 대해서도 ‘서비스’뿐만 아니라 조직 구

성원으로서의 ‘충실감’과 ‘자부심’을 기대함. 그러나 노동시장 특성상 현장 기반(사업장 중심) 조직을 바탕으로 임단협 중심의 노사관계를 통해 경제적·정치적 성과들을 확보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 따라서 사회적 문제제기, 제도개선 투쟁, 초기업적 교섭과 협약 등 청년노조운동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를 통해 청년노조 조직 멤버십이 갖는 의미를 제고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 외연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조합원들이 청년노조 가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본다면, 청년노조 조직이 ‘해 줄 수 있는 것’ 또한 새롭게 재정의 될 수 있을 것.

- 조직운영 측면에서도 재정기반 확충과 조합원 및 간부 교육을 통해 활동에의 참여 수준을 높이하고자 하는 접근의 역발상 역시 필요. 다시 말해 청년노조운동의 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의 확장을 통해 자발적 참여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 여기에는 불안정한 노동현실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존 노조운동의 쇠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노조운동을 주도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강화가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비정규직 노조운동과의 연대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도시지역 민간서비스 부문 중심의 청년층 불안정 노동시장의 문제들이 공공서비스 부문의 주변적 노동자층의 문제나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 사내하청, 중소기업사업장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활동이 필요해 보임. 이는 현재 청년노조운동의 상황을 고려하면 무리한 주문일 수도 있음. 그러나 지역수준의 활동 강화 등 다양한 가능성은 존재. 지역활동의 경우, 일반시민들의 우호적 여론이나 청년노동 문제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식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존 노조조직들의 활동을 사업장 영역 밖으로 이끌어내는 방식 또한 시도될 필요가 있음.